

쇠하지 않는 광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 8:37).

: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사이에 균열을 만들고 분리시키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 어느 것도 성도와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균열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잠시 각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될 수는 있어도 성도의 영혼과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균열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밑바닥에는 갈보리십자가 상에서 보여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원인이요 우리를 영원한 승리자로 만드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를 집어삼키는 상황들 가운데서 결코 즐거움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평범하게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파도가 파도타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파도를 가르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이 사실을 우리 환경에 적용해 보십시오. 환난, 고난, 압박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엄청난 기쁨을 주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환난을 통과하며 승리자가 됩니다. 성도는 환난 없이는 주님의 희락을 알 수 없습니다. 환난 때문에 주님의 희락을 이해합니다. 이에 바울은 “나는 모든 연약함 가운데 기뻐하노라”고 하였습니다^{고후 7:14}.

쇠하지 않는 광채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유한한 것으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인생의 그 어떠한 경험도, 무섭든 단조롭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쇠하지 않는 광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 8:37)

1. 상황보다 큰 사랑

오늘 본문은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열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잠시 방해가 될 수는 있으나 결코 갈라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놓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같은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승리의 열쇠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아니, 이기는 것만으로는 다 표현이 안 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밑바닥에는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보여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참 역설적인 말인데, 당하는 고통과 닥치는 환란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홍차와 같다. 뜨거운 물에 넣고 흔들어야 제 맛이 난다.” 라이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보석을 빛나게 하는 특수용 끌과 줄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시련 혹은 역경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사랑은 평온함 가운데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과 흐르는 피를 통해 우리들에게 전달 된 것입니다.

2. 오히려 기쁨을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어진 상황에 지배를 받느냐, 그 상황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유를 한다면, 똑같은 매트리스지만 깔고 누워서 편안함을 누릴 수도 있고, 그것에 깔려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파도타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수영을 하면서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큰 파도가 올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지만,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는 파도가 공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환난, 고난, 압박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엄청난 기쁨을 주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챔버스가 그의 묵상을 통해 일관성 있게 견지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 두실 때는 빛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요. 우리 삶에 부끄러움이 찾아오는 것은 참 기쁨을 알기 위해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울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 기쁨이 참다운 의미로 다가오듯이, 우리들에게 환난이 없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늘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꺼이 고난을 자처하고 기쁘게 받아 들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25절 말씀.

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에서 ‘더 좋아했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enjoy’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훨씬 더 맘에 와닿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즐겼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득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거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겠구나!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동참할 마음 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기 때문이구나!

오늘 챔버스가 말하는 ‘쇠하지 않는 광채’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란한 기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어떤 환경도 우리를 두려움과 단조로움에 가둬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 ❶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의 크기와 깊이에 비례해 더욱 빛나고 커짐을 믿습니다.
- ❷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한다면, 쇠하지 않는 찬란한 광채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레시피 | 다니엘 3:8-30 + 로마서 8:37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8, 13절)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12, 16절)

명령을 어긴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1, 19-23절)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17-18절)

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27, 30절)

이를 통해 어떤 고백이 선포되었습니까? (28-29절)

참소하다(8절) (히)와아칼루 카르체흔 ‘조각조각 씹어 삼키다’라는 뜻. 궁중 안에 빈번히 발생하던 파벌정치를 반영한 단어이다.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고발할 때 사용하는 표현.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25절)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한다. 당시 바벨론 치하에서 뿐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 한다.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

짧은 기도

주여, 이전에 저는
은혜가 시련보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여 가지기를 원하였고
제게 있는 시련은 없어지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지금 생각하니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라 시련도 은혜입니다…
시련에서 받는 은혜처럼 고귀한 것이 없고,
은혜로 받는 시련처럼 보배로운 것이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주께서 주시는 시련이오매
어느 것을 더 사랑하고 원하리요.
모두가 축복이오니
은혜와 시련에서 주님만 찬송하게 하옵소서

김정준_시련을 주소서(1914-1981, 신학자) 「사귐의 기도를 위한 기도 선집」 188